

2. 마지막 일들 - 19.

낙원 (PARADIS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 * *

1. 낙원은 신자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곳이다.

‘낙원’이란 말은 성경에 세 번 나온다. 누가복음의 낙원은 신자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장소이고(눅 23:43), 고린도후서의 낙원은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이며(고후 12:3-4), 요한계시록의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실현될 에덴동산이다(계 2:7; 22:2).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온 것은 그의 육체가 죽어서 그곳에 갔다가 다시 살아온 체험이 아니다. 그는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낙원’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낙원은 사후 체험이 아니라 계시로 본 하늘의 세상인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이상 중에 ‘시온’에 대해 본 계시와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어 가셔서 ‘낙원’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겔 8:3; 40:2).

겔 8:3; 40:2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누가복음의 ‘낙원’은 음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안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옥’이란 주제에서 다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눅 16:2; 계 20:13-14), 그곳이 음부이다. 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신자와 불신자는 영원히 왕래하지 못한다(눅 16:26).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낙원은 음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장소이다(눅 23:43). 거지 나사로도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베드로 사도는 난해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벧전 3:18-20).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음부에서 보내신 사흘의 행적이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부에 남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후 영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행 2:31; 엡 4:9; 고전 15:20).

Q. 사후에 펼쳐질 현실을 알 때 사망이 신자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전 15:55-58 _____

* * *

2. 낙원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실현이다.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낙원은 부활한 성도들 앞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다(계 2:7; 22:2). 신자가 사후에 곧바로 맞게 되는 낙원과 요한계시록의 낙원의 차이는, 전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고, 후자는 아담의 죄로 상실되었던 옛 에덴 동산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에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옛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상징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로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의 중심에 있다. 영생을 상징하던 생명나무는 열 두 열매를 달마다 맺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이라고 하셨는데 낙원에서 생명나무가 풍성히 공급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는 것은 저주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사 11:9).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에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옛 에덴동산에서도 네 강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으로 흘렀다. 하나님의 영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산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 받았는데, 낙원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것이다.

계 22:1-5 _____

Q. 낙원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구약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겔 47:12 _____

* * *

3. 그리스도인은 낙원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땅의 현실을 직시하며 산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제 삼자의 이야기처럼 소개했다. 거기에는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화법을 사용한 배후에는 그가 본 낙원에 관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얘기를 그만 둔 이유도 있다. 어쩌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보다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낙원’을 보여주셨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금하실 것이었으면 굳이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낙원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말이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낙원에 가서 하늘의 실체를 보고 온 바울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경은 실상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 오랜 세월 후에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들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 비록 바울에게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일찌감치 바울에게 하늘의 실상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그가 기록한 서신들이 요한계시록만큼이나 하늘 나라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담아 전해지게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늘의 영들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지가 ‘하늘의 실상’과 연결되어 있다(살전 5:8-10; 엡 6:12-13; 딤후 4:7-8). 또한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바울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엡 2:6).

엡 2:5-7

두 번째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낙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철저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시와 환상의 체험을 꺼내게 된 동기는 그를 공격하는 대적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이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처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오늘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의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반격하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체험한 이야기를 줄줄이 나열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원천 봉쇄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고후 12:7). 하나님은 사탄이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기 부하처럼 부려서’ 그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공격을 막아 주시기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탄의 밥이 되도록 저버리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노력을 하는데도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문제’로 인식할 때가 많다. 우리는 낙원에서 살 듯이 이 땅에서도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낙원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쟁터이고 우리는 매일 육체의 연약함과 씨름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멀쩡한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이 믿음의 실상이고, 무엇이 실제 현실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이다(고후 1:8-10).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풋대가 분명하다. 낙원에 관한 소식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아직 땅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주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고후 1:8-10 _____

Q. 에덴 동산이 아담을 지켜주지 못했고,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의 미혹이 그를 넘어뜨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추구할 것이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빌 3:13-15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될 새 인류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온통 땅의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 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낙원이라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